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7호 [루체 제23189호] 주제99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의 축산정책 관철에서 모범인 9·27 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축산정책 관철에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한 9·27 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인 홍석형동지, 태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인민보안부장인 주상성동지,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리병삼동지와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어버이 장군님을 또다시 공장에 모시고 충성의 보고를 드리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닭공장의 종업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9년 전 9월 공장에 찾아오시여 주신 전투적 업무를 결사奉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해마다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오리사, 돼지사를 새로 건설하고 공장주변에 여러 정보의 파수원을 조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능력 확장된 이 공장에서는 지금 닭고기, 닭알을 비롯한 축산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신 다음 울창한 수림속에 아담하게 들어 앉은 공장의 내부와 외부를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 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조해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상자마다 차고 넘치는 살찐 닭들과 콜바이를 라고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닭알폭포를 보시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생산을 급격히 늘린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는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찰하여 자체의 사료기지에서 나오는 알곡먹이로 생산을 부단히 높인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당의 축산정책을 빛나게 응호관철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공정의 과학화, 공업화를 훌륭히 실현하였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는 이 공장의 자랑찬 성과는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숭고한 애국심이 놓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업과 축산을 다같이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한 이들의 경험을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활공정의 과학화, 공업화를 훌륭히 실현하였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는 이 공장의 자랑찬 성과는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숭고한 애국심이 놓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업과 축산을 다같이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한 이들의 경험을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현대적인 공장의 특성에 맞게 환경관리에 깊은 관심을 둘려 훌

륭한 위생문화적환경을 조성하고 닭배설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많은 오리와 돼지를 기르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깐깐한 본색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풍치수려한 산기슭에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진 닭공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이 공장은 위치도 좋고 건설도 질적으로 잘되었을 뿐 아니라 과학화, 집약화의 실현으로 그 생산성도 대단히 높아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고 있는 실리있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풍족히 공급하는데 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최근년간 도처에 현대적인 가금목장, 돼지공장, 염소목장, 소목장을 비롯한 많은 축산기지들이 일떠서 크게 음을 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최신파학기술에 기초한 우리식의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거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9·27 닭공장은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과 생산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기본임무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생활상수요에 맞게 고기와 알생산량을 더욱 늘리고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여 현대적인

서비스들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금업에서도 생산장성의 예비는 종자 문제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계속 펼쳐져 관찰하여 사료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고 알낳이 높아 우량품종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종금장들에서 종금생산과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우량한 종자닭들을 계획적으로 충당없이 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닭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사료기지를 훤히 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자체의 굳건한 사료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우월성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축산에서 수의방역사업은 생명과 같으므로 닭공장에서 방역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자면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과학적인 경영체계를 펼쳐 헌신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9·27 닭공장에서와 같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벌리도록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만난 시련을 헤치며 굳건히 다져온 위력한 주체공업이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함으로써 지금 우리 조국에는 역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 오랜 세월 바라던 희망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승리의 날이 가까워울수록 더욱 분발하여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뱃길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앞으로도 높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생산에서 계속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9·27 닭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도처에 위대한 사랑의 창조물을 일떠세워주시고 은을 내도록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파업을 빛나게 관찰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기여 할 충성의 결의에 넘쳐 있다.

본사정지보도반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4일 평양체육장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에는 백전백승의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여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시였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성기를 열어놓

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토와 신뢰의 정이 뜨겁

게 굽이치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조선로동당

기념관에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

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빛들어나가

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

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및나

는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과 《경축 50

돐》이라는 글밭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

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빛들어나가

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

었다.

한희 총직한 선군혁명전사가 되

자!》, 《위대한 장군님의領導

라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

자!》, 《선군의 기치따라 영웅조

선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펼치

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판,

사회단체, 성, 중앙기판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

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

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

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

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최영립동지, 김영춘

동지, 리옹무동지, 오구렬동지, 전

병호동지, 최태복동지, 리영호동지,

김정일동지, 김국태동지, 양현석동

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들, 무력기판, 근로단체, 성, 중앙기판 책임일군들, 영웅들, 공

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애국의 주역으로 시작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회의 정체원로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몽쳐 자위적 국방력을 배방으

로 강화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과 주체혁명업의 완성을 위하여

역세계 짜워나갈 참가자들의 열정

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역으로 끝

났다.

【조선중앙통신】

사설

# 위대한 백두령장의 선군혁명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령도자에게 있어서 군대를 틀어쥐고 혁명을 평도하여 온 혁사가 반세기를 헤아리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것은 불세출의 령장이신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이 수놓으실수 있는 백승의 령도실록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주체 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 제 105땅고사단에 현지지도의 거룩한 첫 자속을 세기시였다. 이것은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 온 우리 혁명이 선군의 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새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선언한 역사적사변으로 되었다.

8월 25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선군사상과 위업계승의 성스러운 혁사가 펼쳐진 의의 깊은 날이며 우리 혁명 무역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리정교가 마련된 혁명적기념일이다. 김일성민족의 모든 승리와 영광, 선군조선의 강성대과 황창한한 미래는 이 혁사의 날짜 하나로 되어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속을 세기신 50돐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 동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전례로는 양양된 정치적분위기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하여 더욱더 뜻깊은 경사의 날로 되고 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혁사의 준엄한 폭포우리를 헤치며 류체없는 승리와 기적을 아로새겨온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대들을 공지높이 들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내나라, 내 조국땅위에 하루빨리 무궁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드높은 결의에 넘쳐있다.

반세기 이르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의 혁사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되고 우리 조국이 최강의 정치군사력을 지닌 강국으로 솟구쳐온 모든 영광의 행로이며 반세기대결전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고 선군조선의 앞길에 강성번영의 찬란한 새시대가 열린 공지높은 대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높이 사나운 풍파를 헤치고 혁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영광스러운 승리를 걸어왔습니다.』

선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고유한 전통이며 백승의 보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의 선군사상을 제시하였으며 총대에 의거하여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총대이자 혁명이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는 철리를 확증하였다.

일찍이 선군령의 뿌리가 내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고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시였으며 출연한 조국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혁명의 심원한 뜻이 어린 흔적을 물려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대로 개척된 우리 혁명을 풍도대로 기어이 완성할 결의의 맹세를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시면서 지난 세기 60년대는 철리마 대진군의 불길속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우리 혁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면 혁사적시기였다. 당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 전쟁에 대처방해 등은 국도에 달하였고 국제무대에서는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여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조성하며 사회주의의 힘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강력한 반제지주의 풍도에서만 승승장구하게 될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의 혁명적기운을 통찰하시고 혁사적인 군현지지도의 길에 이르렀다. 이것은 백두의 빛나는 선군전통을 계승하여 우리 혁명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 걸로로만 전진시켜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의 분

출이였고 김일성조선의 면 앞날을 대다 보신 결단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무역의 강화발전과 주체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두정에서는 획기적전환의 일어나게 되었으며 우리 혁명은 인민군대의 혁심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모든 전선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켜나가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세계제2차 그 어느때

보다 북잡하고 우리 혁명앞에 방대한 혁명파업이 나서고있던 지난 20세기 후반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혁명전통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조석으로 빛을 뿐리고 우리 일상단결의 위력이 전백배로 강화되었으며 이 땅우에 이 되고 있으며 주체혁명을 선포하고 떠밀고나가는 핵심부대로 되고있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림없고 그 어떤 대적도 타승하는 강위력한 혁명적무장성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앞장에서 밟들이나가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혁명이 세기를 이어 이 백승을 떨치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사에서는 근본정치방식으로 정평하시고 뷔페없는 인민군대를 혁신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오신 궁지높은 년대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출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총대로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익히고수하고 영원히 청송하며 전제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무한대한 위력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전선에서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김일성민족이 천추만대를 끌어들이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었다.



# 선군의 가치따라 전진하는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정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김일성민족의 영광 만대에 떨치시는 회세의 령장

선군으로 빛나는 내 조국땅에 또 한들기의 난들이 자랑스럽게 아로 새겨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정도를 시작하신 50돐!

돌이켜보면 반세기를 헤아리는 불멸의 이념대기와 더불어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민족의 기상이 최상의 경지에 훌려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남다른 공지와 자부심을 얼마나 가슴뜻이 더해 주고 있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볼수록 무적의 종래를 앞세우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끌어온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위대한 혁사에는 그 혁사를 빛나는 승리에로 주도해나가는 불멸의 가치가 있다.

지난 50년간 백두에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주체혁명위업을 선군제도를 따라 강성대국승리의 맹마루에 힘 있게 이끌어온 조선혁명가에 대한 흠모심이 북받쳐올라 걱정을 금할 수 없다.

잊지 못할 반세기전 8월의 그날처럼 오늘도 총대에 개최되고 전진하며 승리하여온 주체혁명위업을 깔까지 완성할 필승의 신념과의지를 안으시고 선군길을 즐기차계 이어가고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앞두고 온 나라에 대고 조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정도를 시작하신 50돐을 뜻깊게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조선의 영광을 소리높이 구가하며 백승으로 빛나는 종대혁명의 난대기들을 감회깊이 돌아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우리 혁명은 새로운 앙양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양 양이 이루어되었습니다.』

어언 반세기가 훌렀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유구한 혁사에서 반세기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조국이 불폐의 강국으로 우뚝 솟아 빛나고 김일성민족의 위용을 온 누리에 펼친 반세기.

그 불멸의 혁사를 들이켜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격정을 금치 못해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위대한 혁사에는 그 혁사를 빛나는 승리에로 주도해나가는 불멸의 가치가 있다.

지난 50년간 백두에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주체혁명위업을 선군제도를 따라 강성대국승리의 맹마루에 힘 있게 이끌어온 조선혁명가에 대한 흠모심이 북받쳐올라 걱정을 금할 수 없다.

바로 그려 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피어난 령장을 통하여 마련하신 선군의 초성을 펼승의 무기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출기차게 이끌어갈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안으시고 선군혁명정도의 력북한 첫 자욱을 짹으신 경에 하는 장군님.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정도를 시작하신 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의 난대기우에 성스러운 계승의장을 새기며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고는 오늘의 강성대국건설세대 전에 대하여 어찌 생각이나 할 수 있으랴.

강력한 혁명의 종대우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이 있으며 훈련찬란한 미래가 절실히 있다.

이것은 지나온 반세기력사에 의하여 그 전력성이 다시 한번 낭금없이 확증된다. 백두의 선군령장을 전두에 높이 모시고 선군의 걸을 따라 승승장구하여온 우리 혁명의 귀중한 승화이다.

8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지는 선군승리의 만세소리에 귀기울이면 총대혁명의 정당성이 다시금

우리 조국청사에 깊이 아로새겨지던 혁사의 날의 사변적인 의의가 우리의 가슴을 콩콩 울려준다.

잊지 못할 그날은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그때는 그 누구도 몰랐다. 우리 장군님께서 어찌 하여 위대한

8월을 마음속에 새겨보며, 선군복을 마음껏 누려온 반세기기를 키워보려고 그토록 환희에 넘쳐있는것은 그래서이다.

선군조선의 훌륭한 앞날이 태양 같이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미소에 그대로 어여여어서 환희로 가슴부푼 인민의 목소리.

선군승리의 만세소리가 8월

은 사변은 정녕 얼마나 큰것이었는가.

위대한 당의 혁명한 선군혁명정도밀에 난대와 세기를 주름잡으며 강성대국의 물어구에 확고히 들어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사의

8월을 마음속에 새겨보며, 선군복을 마음껏 누려온 반세기기를 키워보려고 그토록 환희에 넘쳐있는것은 그래서이다.

선군조선의 훌륭한 앞날이 태양

방으로 강화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남원인 주체의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인민의 환희는 반세기의 혁사

를 빛내이시며 세기적 인기적파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신 경에 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선군혁명사상 만세!』라는 구호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백발불

신령에도 어려여있으며 사회주의선경을 노래하는 선군 1

경에 도 력력히 어려있다.

오늘 우리 조국의 농부신 현실은 8월의 하늘가에 넘쳐는 우리

인민의 환희는 반세기의 혁사

를 빛내이시며 세기적 인기적파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신 경에 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선군혁명사상 만세!』라는 구호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백발불

신령에도 어려여있으며 사회주의선경을 노래하는 선군 1

경에 도 력력히 어려있다.

세계가 조선전쟁 이후 대표적인 조미군대결전이라고 떠들었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 대형 간첩비행기 사건, 판문점사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거둔 위대한 승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정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잊지 못할 혁사의 그 나날들에 온 누리를 진감한 것은 또한 백두령장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어지는 장군님께서는

전국도처에서 선군의 알찬 열매를 키우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강선의 봉화가 김철의 불길로 타오르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인 회천속도가 창조되어온

나라에 대현신, 대비의 술정이 더욱 높뛰고 있으며 강성대국승리를 예고하는 온 나라의 대경사들이 제시하신 것은 선군의 기적 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가기 위한 전면토대를 마련한 또 하나의 혁사적사변이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면서 주체의 군대와 민족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온

8월의 하늘가에 넘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멸의 혁사의

8월을 마음속에 새겨보며, 선군복을 마음껏 누려온 반세기기를 키워보려고 그토록 환희에 넘쳐있는것은 그래서이다.

선군조선의 훌륭한 앞날이 태양

방으로 강화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남원인 주체의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인민의 환희는 반세기의 혁사

를 빛내이시며 세기적 인기적파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신 경에 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선군혁명사상 만세!』라는 구호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백발불

신령에도 어려여있으며 사회주의선경을 노래하는 선군 1

경에 도 력력히 어려있다.

세계가 조선전쟁 이후 대표적인 조미군대결전이라고 떠들었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 대형 간첩비행기 사건, 판문점사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거둔 위대한 승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정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잊지 못할 혁사의 그 나날들에 온 누리를 진감한 것은 또한 백두령장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어지는 장군님께서는

전국도처에서 선군의 알찬 열매를 키우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강선의 봉화가 김철의 불길로 타오르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인 회천속도가 창조되어온

나라에 대현신, 대비의 술정이 더욱 높뛰고 있으며 강성대국승리를 예고하는 온 나라의 대경사들이 제시하신 것은 선군의 기적 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가기 위한 전면토대를 마련한 또 하나의 혁사적사변이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면서 주체의 군대와 민족에 불멸의 혁사의

를 빛내이시며 세기적 인기적파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신 경에 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선군혁명사상 만세!』라는 구호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백발불

신령에도 어려여있으며 사회주의선경을 노래하는 선군 1

경에 도 력력히 어려있다.

세계가 조선전쟁 이후 대표적인 조미군대결전이라고 떠들었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 대형 간첩비행기 사건, 판문점사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거둔 위대한 승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정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잊지 못할 혁사의 그 나날들에 온 누리를 진감한 것은 또한 백두령장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어지는 장군님께서는

전국도처에서 선군의 알찬 열매를 키우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강선의 봉화가 김철의 불길로 타오르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인 회천속도가 창조되어온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에 기초하시는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

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인민군부대들을 품입임이 현지시찰활

신 위대한 장군님.

빨찌산식 강행군으로 온 나라를

총황무진하시며 인민군대를 본보

기로 하여 사회전반을 들끓여 하

시고 선군혁명의 전두에서 부강

군대건설의 도약대를 얹혀같이

운데 놓았던 우리 장군님의 불멸

의 혁명적과 헌신적 정신을

갖고 있는 혁사의 그 나날들에 온

누리를 진감한 것은 또한 백두령장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어지는 장군님께서는

전국도처에서 선군의 알찬 열매를 키우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강선의 봉화가 김철의 불길로 타오르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인 회천속도가 창조되어온

나라에 대현신, 대비의 술정이 더욱 높뛰고 있으며 강성대국승리를 예고하는 온 나라의 대경사들이 제시하

신은 대로 개척하신 주체혁

명위업을 총대로 끌기까지 완

성하시려는 그의의 확고한

의지를 천진로 백두의 행군길

을 끊임없이 끌어가며 이어나가

야 합니다. ...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의

임숙한 선언. 그것은 위대한

한군대를 품입임이 현지시찰활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정도를 시작하신 5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의 뇌리에 더더욱 새겨지는 철의 진

리가 있다.

절세의 애국자, 회세의 선군령장을 혁명의 전두에 높이 모시고 있기

에 배전백승의 혁사는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순길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꽂고 헤쳐오며 천민민이 심장에 새긴 이 진리는 오늘 8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선군정치는 모든 승리의 달 보입니다.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미제의 명줄을 거머쥐고 원쑤들의 책동을 선

#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신념의 맹세

조선인민군 류해공군장병들의  
결의 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을 맞으며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의 본분을 달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류해공군장병들의 결의모임이 24일 쟁우리혁명사적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 장소 한 가운데에 있는 대형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임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모임 장소는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 대회》,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반드시 기수가 되고 돌격해야 되어야 한다!》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김영춘동지, 리영호동지, 김정각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군들, 조선인민군 군종, 병종사령관들, 특히 공군장병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제로 시작되었다.

김영춘인민무력부장의 보고에

이어 장령들인 김수학, 김송철, 군관들인 김영찬, 리철호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인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이곳에 사직하고자 서울류

경우 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세기 위한 데에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사의 그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요구에 맞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민족의 보건과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승리의 백두산혁명군으로

강회발전시키시여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인공지구 위성체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었으며 인민군대를 혁신으로, 주력군으로 개척하고 전진하여 선군혁명을 향해 끌끌이 활성화하여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세기신은 수령결사용위의 기치밑에 총대를 세우고 꿈꾸어나가는 것을 인민군대의 기

본부에서 행하는 혁명적기운으로,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영춘동지, 리영호동지, 김정각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군들, 조선인민군 군종, 병종사령관들, 특히 공군장병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제로 시작되었다.

김영춘인민무력부장의 보고에

강회발전과 주체의 선군혁명위 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그들은 결의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혁지지도로부터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50성상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비범한 군사적실력과 투철한 총대신념, 억척불변의 의지로 거

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민족의 보건과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승리의 백두산혁명군으로

강회발전시키시여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인공지구 위성체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었으며 인민군대를 혁신으로, 주력군으로 개척하고 전진하여 선군혁명을 향해 끌끌이 활성화하여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세기신은 수령결사용위의 기치밑에 총대를 세우고 꿈꾸어나가는 것을 인민군대의 기

본부에서 행하는 혁명적기운으로,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영춘동지, 리영호동지, 김정각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군들, 조선인민군 군종, 병종사령관들, 특히 공군장병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제로 시작되었다.

김영춘인민무력부장의 보고에

생산체계가 완성되었으며 주체 생일, 비료폭포가 쏟아지고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렁이 어 일어서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의 정당성과 위대한 혁신에 대한 두렷한 증시로

된다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군 특혜공군장 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인민

군대를 무적승리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주시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시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밤들어나가는 것은 백두산 천출령장의 슬하에서 혁명의 기동, 주력군으로

자라난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

라고 말하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당파 수령을 맨 앞장에서 옹호보위하며 백두의 혈통을 풍태로 꽂아온 이어 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선군

혁명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데 기여할 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보임은 《혁명의 수녀부 결사옹

위화리파》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투철한 수령결사옹 위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현지에서도 물어쳐온

종교나 정치를 몰라하는 혁신에 대한 두렷한

증시로 행하는 혁신에 대한 두렷한

조선인민군 류해공군장병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경축 조선인민군 특혜공군장병들의 무도회가 24일 성술리

현군사적지에서 진행되었다.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무도회를 단호히

주체 4 9 (1960)년 8월 25일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

## 밸러불가담운동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것이다

우리 나라가 밸러불가담운동의 정성 원국이 된 때로부터 서른다섯해가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75년 8월 25일 밸러불가담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친동밀에 우리 공화국의 밸러불가담운동 가입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시종일관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반제, 반전쟁화 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 왔으며 반제자주와 세계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공동위업에 크게 기여해온 우리 공화국의 밸러불가담나라들과 세계평화에 헌신한 표시로서 밸러불가담운동을 확대 발전시키고 그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는 사변이었다.

우리 나라가 밸러불가담운동에 있어서 옹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평화에 혁신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결실이었으며 그 정성성과 불폐의 생활에 대한 확신이었다.

밸러불가담운동의 가치를 드고나아감으로써 제국주의, 치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독립,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공화국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국제 무대에서 더욱 많은 벽들을 가지게 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 환경은 보다 좋아지게 되었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領導에 지난

기간 우리 공화국은 존엄하고 권리있는

밸러불가담운동으로 이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시대 혁명발전과 밸러불가담운동의 새로운 요구, 밸러불가담운동의 공통된 지향과 원원을 학제적으로 통찰하심에 기초하여 밸러불가담운동을 학제적으로 확대발전과 그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탁월한 사상리론과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정력과 심혈을 기울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밸러불가담운동을 그 숭고한 리념과 목적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과 밤침에 따라 우리 공화국 정부는 북집단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변함없이 밸러불가담운동의 리념과 원칙을 고수하였다. 밸러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의 주체사상으로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철해당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협, 파괴하는 군사적 충돌과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밸러불가담운동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절차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주와 평화를 밸러불가담운동의 기본리념으로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는 것은 밸러불가담나라들 앞에 나서는 선차적인 책임이다.

국제판례에서 제일 심각하게 우린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주와 평화이다. 자주와 평화를 침해하는 주되는 최근 동은 미국과 서방의 강권과 전횡, 군사

하는 폭넓은 국제적 운동으로 장성 강화되고 인류역사를 전진시키는 힘 있는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밸러불가담운동의 기본원칙으로 된다. 자주성을 견지하는 여기에 밸러불가담운동 성원들이 자주와 평화를 유린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강권과 전횡, 군사 밸러불가담운동을 짓부실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

밸러불가담운동은 단결의 전략을 견지하고 그 위력으로 자기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단결은 밸러불가담운동의 불懈의 힘의 원천이다. 현실은 밸러불가담나라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힘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운동의 통일단

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한

다면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분열리간

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성이 강한 밸러불가담운동 원국이다. 공동의 목적과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나라의 밸러불가담나라들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며 있다. 우리

정부와 인민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밸러불가담나라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로 밸러불가담운동의 기

자주권을 확보해나가는 것을

다 할 것이다.

밸러불가담운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밸러불가담나라들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밸러불가담운동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것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밸러불가담운동의 기본원칙으로 된다. 자주성을 견지하는 여기에 밸러불가담운동 성원들이 자주와 평화를 유린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강권과 전횡, 군사 밸러불가담운동을 짓부실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

밸러불가담운동은 단결의 전략을 견

지하고 그 위력으로 자기의 숭고한 리

념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단결은 밸러불가담운동의 불懈의 힘의 원천이다. 현실은 밸러불가담나라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힘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운동의 통일단

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한

다면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분열리간

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성이 강한 밸러불가담운동 원국이다. 공동의 목적과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나라의 밸러불가담나라들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며 있다. 우리

정부와 인민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밸러불가담나라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로 밸러불가담운동의 기

자주권을 확보해나가는 것을

다 할 것이다.

밸러불가담운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밸러불가담나라들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조택범

## 『방어』의 외피를 쓴 핵시험전쟁

미국과 핵뢰호전쟁들이 남조선전역에서 강행하고 있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열기를 띠고 있다. 그들이 이미 벌려놓은 조선동해와 서해에서의 도발적인 해상동동훈련의 계단식 확대인 이 전쟁 소동은 조선반도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전면전쟁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호전쟁들의 전례없는 전쟁광기를 두고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가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금지 못하고 있다.

호전쟁들은 그것을 무마시켜 보려고 별의별 구스터리에 범명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미국 남조선『련합군사령부』에 『울지 희소』『리버』『트리뷴』『방어』와 『동태제』를 점검하는 훈련이라니, 기동훈련이 아닌 『지휘소』로 전개되는『리버』는 어떤 말장난으로도 이번 전쟁연습소동의 치악적 성격과 엄증성, 위험성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이번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이전에 대비하여 보다도 더 쳐낼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미제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압하고 놀래워보려 하고 있다. 그들이 전쟁연습을 『무력시위』로 공개하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러나 적들은 그 어떤 말장난으로도 이번 전쟁연습소동의 치악적 성격과 엄증성, 위험성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우리 군대와 민족이 6 0 0 0 0 명여성이 동원되고 있다. 지난 시기에는 이 전쟁연습에 1 명여성이 미군병력이 동원되었다면 이번에는 해외병력 3 0 0 0 0 명여성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핵시험과 핵폭탄 등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미제 침략군의 방대한 무력이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에 기동전개한 상태에 있으며 중부평양성선과 미국本土에는 『우사시』『조선전선』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

내외호전쟁들은 우리 군대와 민족의 정신력과 힘을 오만하게 막고 부질없는 전쟁소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리현도

## 조선 일본이 과거죄행에 대해 사죄, 배상할 것을 요구

###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여려나라 통신, 신문이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일본이 무력을 동원하면서 조선의 제도를 강화하고 강제방법으로 『한일합병 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를 군단·함대사령부, 비행단급이 상 지휘부의 5만 6 0 0 0 0 명여성이 동원되고 있다. 지난 시기에는 이 전쟁연습에 1 명여성이 미군병력이 동원되었다면 이번에는 해외병력 3 0 0 0 0 명여성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핵시험과 핵폭탄 등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미제 침략군의 방대한 무력이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에 기동전개한 상태에 있으며 중부평양성선과 미국本土에는 『우사시』『조선전선』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

내외호전쟁들은 우리 군대와 민족의 정신력과 힘을 오만하게 막고 부질없는 전쟁소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피뢰들이 현역 및 예비역 무력

온 몰은 지방의 피뢰 행정기관들과 민간업체들

은 남조선에 대한 협력으로 『울지 희소』『리버』『트리뷴』『방어』와 『동태제』를 점검하는 훈련을 가지고 있다.

미제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압하고 놀래워보려 하고 있다. 그들이 전쟁연습을 『무력시위』로 공개하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러나 호전쟁들의 그따위 허장성세에 놀랄 우리 군대와 민족이 아니라이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이다. 우리는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 공화국을 노린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이 한계선에 이를 때까지 우리 군대와 민족은 이미 내외에 선후반대로 미제와 그 주변국들에게 무자비한 대응의 철주를 내릴 것이다.

내외호전쟁들은 우리 군대와 민족의 정신력과 힘을 오만하게 막고 부질없는 전쟁소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는 『울지 희소』『리버』『트리뷴』『방어』와 『동태제』를 점검하는 훈련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대변인은 일본이 폐망 후에도 조선의 통

일을 방해하면서 조선의 제도를 압살하기 위한 적대시정책을 강행한 모든 반공화국, 반총체제 동에 대하여 성실히 반성하고 대조선적 정제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렇게 하여야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일본

전쟁연습을 하여야 한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무력이 강화되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평양일보』, 로씨야의 『이파르-파쓰로통신』, 미국의 AP통신, 일본의 『도쿄신보』, 『니혼게이자이신보』도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요지를 보도하였다.

본사기자는 『울지 희소』『리버』『트리뷴』『방어』와 『동태제』를 점검하는 훈련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대변인은 일본이 폐망 후에도 조선의 통

일을 방해하면서 조선의 제도를 압살하기 위한 적대시정책을 강행한 모든 반공화국, 반총체제 동에 대하여 성실히 반성하고 대조선적 정제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렇게 하여야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일본

전쟁연습을 하여야 한다.

한편 모리서스부수군의 인디아

양에서 1 6 1 일 히리히 척도로 6. 6 의 지진이 있었다.

우리는 혁명의 전진을 수호하고 있다.

우리는 혁명의 전진을 수호하고 있다.